

# “배우 최민식은 아직 피가 끓는다”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의 배우 최민식  
 “한 인간 삶 그린 대서사시에 끌려 태움”  
 “주인공 차무식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연기 아닌 듯 자연스러운 연기 의도해”  
 “내게 연기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제가 아직 피가 끓나 봐요.” 최근 디즈니+가 공개한 드라마 ‘카지노’ 메이킹 영상 속엔 배우 최민식(61)이 배우·스태프와 함께 앞으로 연기할 액션 장면에 대해 논의 중인 모습이 나온다. 최민식은 현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의견을 낸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을 주도한다. 아직 연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장면에 깊숙이 몰입해 있다.

최민식은 1989년 데뷔해 34년 간 연기하며 대한민국 최고 배우가 됐다. 뜨거운 배우, 불 같은 배우가 그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최민식은 환갑을 넘겼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이미 은퇴했을 나이.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타오른다. ‘카지노’를 끝낸 최민식을 만나 이 열의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그는 씩씩하게 웃는다. “아직 피가 끓는다”고 말하며 웃었다.

“촬영은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끝내야죠. 또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담아서 보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집중해서 찍고 연기해야죠. 그리고 만약 그걸 액션이라면 누구도 다치지 않게 장면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낸 겁니다.”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카지노’는 강윤성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민식이 없었다면, 아마 이 드라마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존재감, 그가 이 극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카지노’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최민식의 열정에서 시작한 드라마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한 인간의 삶을 그린 방대한 이야기, 대서사시를 해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영화계 여건상 그런 작품을 만나지는 못했다.

기회는 우연찮게 찾아왔다. 강 감독과 함께 준비하던 영화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제작이 무산됐고, 최민식은 강 감독에게 집필 중인 다른 아이템을 없느냐고 물었다. 그때 강 감독이 최민식에게 내놓은 게 바로 ‘카지노’ 트리트먼트였다. 초고 수준의 원고였지만, 최민식은 자신이 찾던 그런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쪽 읽어보니까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강 감독에게 힘들겠지만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꼼꼼하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습다. 이렇게 긴 호흡의 작품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최민식의 마지막 드라마는 MBC에서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 방송한 ‘사랑과 이별’이었다. 이후 최민식은 영화만 했다. 그가 드라마로 돌아오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겹쳤다. 코로나 사태로 극장 상황이 안 좋아졌고, 앞서 언급했듯이 대서사시를 완성해보고 싶다는 최민식의 바람도 있었다. 그는 “물리적인 힘들은 어떤 작품을 하든 땀으로 갈고 가는 것”이라며 “한 시퀀스라도 놓치면 극 전체가 엉켜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다.

‘카지노’는 차무식이라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강박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란 유년 시절은 불우했고, 머리는 좋았지만 이미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학창 시절도 고달팠다. 어떻게든 대학에 갔지만, 의도치 않게 민주화 시위에 휘말리며 군에 가야 했고, 대북첩보공작부대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영어 학원을 하다가 불법 도박장에 손을 댔고, 이후 세무 당국에 쫓겨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전 재산을 도박으로 잃었다. 그리고는 다시 온갖 구질구질한 일을 하며 특유의 수완을 발휘해 필리핀 카지노 거물이 됐다. 그리고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 당해 느닷없이 죽어버린다. 최민식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차무식을 “평범한 남자”라고 설명했다.

“그냥 인생이 그렇게 굴러간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성을 차무식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이냐고 다들 물어봐요. 죽어도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죠. 실제 삶에서 누아르 영화처럼 비장하게 죽고 그런 건 없잖아요. 만약 시청자들이 차무식의 죽음을 보고 허무함을 느꼈다면, 그게 저희가 의도한 겁니다.”

‘카지노’는 카지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일부 살리면서 동시에 최민식의 말처럼 리얼리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보여주듯 최민식은 앞서 그가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줬던 그 무시무시한 표정을 간혹 내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극도의 자연스러움으로 연기한다. 마치 연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카지노’에서 최민식을 보고 있으면 연기의 궁극은 연기와 실재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맞아요. 그렇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이 작품은 그렇게 연기하는 게 어렵다고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쓰던 장난스러운 말투나 행동 같은 걸 일부러 일부 넣은 거죠. 극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배우는 몸이 약기입니다. 연기하는 캐릭터가 음악으로 치면 록이나 발라드나에 따라 이 몸뚱아리를 연주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무식은 무엇을 좇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이다. 표면적으로는 돈이 목표인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 들인 막대한 돈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카지노’엔 차무식이 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이 없다. 그는 그저 돈을 쌓아 올리는 데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런 차무식에 빚대어 배우 최민식은 무엇을 좇아 연기하는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민식은 마치 차무식 같은 답변을 내놨다. “한 작품을 완성해가는 재미에 취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글썽요. 연기가 정말 나한테 뭘지 잘 모르겠어요.”

“고3 때 처음 대본 리딩한 이후에 운 좋게도 평생 이 일만 했어요. 뭐랄까,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과 비슷한 일인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라는 게 죽어야 끝나는 작업이잖아요. 아마 저는 연기의 의미를 끝까지 모르고 갈 것 같아요.”

## 주상욱, ‘연애, 가볍고 쉬운’ 출판사 대표로 변신... ‘보라! 데보라’



ENA 새 오리지널 드라마 ‘보라! 데보라’ 측은 27일, 연애가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쉬운 남자 ‘한상진’(주상욱 분)의 일상을 포착해 공금

다음달 12일 ENA 오후 9시 첫 방송 예정

증을 높인다.

‘보라! 데보라’는 연애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애코치 ‘데보라’(유인나 분)와 연애는 진정성이라는 출판 기획자 ‘이수혁’(윤현민 분)이 함께 연애서를 만들며 시작되는 과묵한 유달로맨스를 그린다.

밀고 당기고, 찜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연애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현실 공감을 더해 시청자들의 설렘 세포를 깨운다.

공개된 사진 속 도서출판 진리의 대표 한상진의 모습이 카리스마와 여유로움을 오가 CEO다운 면모가 엿보인다. 깊은 연애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만끽하는 인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남자 ‘이수혁’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업 동반자인 그는 수혁의 유일한 연애 상담사로서 빼 때리는 조언을 한다. 유쾌한 웃음을 부르는 두 사람의 차진 티카타카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더한다.

주상욱은 “한상진은 어느 자리에서나 분위

기 메이커를 담당한다. 항상 사람들의 웃음 버튼을 자처하는 인물”이라며 “상진의 유머러스한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크게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현민 배우와는 오래 앞선 사이처럼 유머 포인트가 비슷해 급속도로 친해졌다. 진지하다가도 장난스럽게 하면 장난을 잘 맞춰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촬영했다”며 두 사람이 보여줄 시너지 또한 기대감을 모은다.

또 주상욱은 ‘보라! 데보라’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데보라’의 예리하고 속이 뽕 뚫리는 사이다 조언과 ‘각기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꼽았다. “하나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수많은 연애유형을 여러 인물의 상황에 녹여 보여준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현실적인 사연들이 공감을 높이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 12일 오후 9시 첫 방송.

뉴스

##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 100’ K팝 최단기록

작년 11월18일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K팝 그룹 신기록을 썼다.

27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달 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4월1일 자 ‘핫 100’에서 100위로 진입했다.

작년 11월18일 첫 EP ‘더 피프티(THE FIFTY)’로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디토(ditto)’로 데뷔 6개월 만에 ‘핫100’에 진입한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를 제치고 해당 차트에 데뷔 이후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 됐다.

‘큐피드’는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복고풍의 신스팝으로, 뉴진스가 촉발한 K팝 걸그룹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가져온 이지 리스닝 계열의 곡이다. 외국 작곡가들이 주축을 이뤘던 멜로디를 만들었고 멤버 키나가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

이번 성적으로 피프티 피프티는 워너걸스,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리고 뉴진스와 함께 ‘핫 100’에 진입한 K팝 걸그룹 5팀에 포함되는 역사를 썼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하면 해당 차트에 진입한 6번째 K팝 그룹이다.

K팝 솔로 중에선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 블랙핑크 로제와 리사, 싸이, 그룹 ‘2NE1’ 출신 씨엘,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태양 정도가 ‘핫 100’에 올랐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는 대형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차트에 진입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어트랙트(Attrakt) 소속인 피프티 피프티는 세나, 아란, 키나, 시오 등 한국인 멤버 4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활동상의 반반을 뜻하는 팀명엔 ‘이상’과 ‘현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각각 50씩을 담당하는 팀과 팬덤이 함께했을 때 완

전한 합이 100이 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녹였다. 2020년 2월부터 데뷔 준비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데뷔가 늦어졌지만 오히려 그 기간을 실력을 쌓는 발판으로 삼았다.

작년 11월 데뷔했다. 국내에선 크게 주목 받지 못했으나 곡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북미 시장에서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도 인기다. 이들의 영상

댓글의 대부분은 영어 등 외국어다.

이들이 처음 빌보드 세부 차트에 진입한 건 지난 11일 자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8위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자 차트에서 ‘빌보드 글로벌 200’(Billboard Global 200) 106위,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Billboard Bubbling Under Hot 100) 12위,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Billboard Emerging Artists) 20위를 차지했다. 특히 ‘핫 100’에 아쉽게 진입하지 못한 25위까지 순위 차트인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엔 K팝 걸그룹 중 데뷔 이후 가장 빠른 기간 내 진입해 ‘핫100’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무엇보다 어트랙트는 대중음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홍준 대표가 이끄는 곳이다. 전 대표는 양수경, 바비킴, 하성운 등의 음반을 제작했다.

어트랙트의 매니지먼트 최승호 담당은 전 대표와 25년 지기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어트랙트는 대중음악계에 국악과 협업 바람을 일으킨 JTBC ‘풍류대장’ 프로젝트를 총괄하기 위해 특수법인 어트랙트엔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해오던 것만 해도 잘할 중견들이지만, 오히려 북미라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눈을 돌렸다. 처음부터 현지 시장을 겨냥해 피프티 피프티를 제작한 것이다. 최 담당은 “올해 6월 즈음에 북미 시장에서 반응이 올라 생각했는데 ‘큐피드’로 생각보다 빨리 왔다”면서 “국내에선 팬덤이 없어 차트 성적이 도드라지지 않지만,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해줬고 전 대표의 용단이 있어 가능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 K팝 ‘국제음반협회’ 글로벌판매 톱10 중 8장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통적인 물리적 음반 열 장 중 여덟 장이 K팝 음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K팝 팬덤의 확고한 구매층이 다시 확인됐다.

28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가 발표한 ‘베스트 셀링 퓨어 앨범스 월드 와이드(Best selling pure albums worldwide) in 2022’에 따르면, 2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앤솔러지 앨범 ‘프로프(Proof)’를 선봉으로 이 조사 톱10에 K팝 앨범이 여덟 장이나 포함됐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기도 했던 방탄소년단의 ‘프로프’는 한국 가수 최고 순위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에서 3년 연속 5위권 내 진입하며 ‘21세기 팝 아이콘’의 위상을 세삼 입증했다.

작년 ‘빌보드 200’ 두 번 정상에 오르며 대세 K팝 그룹이 된 ‘스트레이키즈’(Stray Kids·스키즈)의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가 4위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를 해당 차트 8위에 올리며 톱10에 두 장의 앨범을 진입시켰다. 두 앨범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그룹 ‘세븐틴’(SVT)은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으로 해당 차트 5위를 기록했다. 세븐틴 역시 정규 4집 리패키지 ‘섹터(SECTOR) 17’까지 9위에 올리며 두 장의 앨범을 톱10에 진입시켰다.

‘엔하이픈(ENHYPEN)’은 미니 3집 ‘매니페스토 : 데이 윈(MANIFESTO : DAY 1)’으로 6위에 올랐다. 역시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블 핑



크’가 7위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는 미니 4집 ‘미나소드 투 : 서스테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로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멜티 레이블 체제’를 확실히 갖춘 하이브가 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빅히트 뮤직), 세븐틴(플래티스 엔터테인먼트), 엔하이픈(빌리프랩) 네 팀의 앨범 총 다섯 장을 톱10에 포함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JYP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스트레이키즈와 블랙핑크로 K팝 대형 기획사 체면치레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대만 톱스타 저우제룬(周杰倫·주걸룬)이 6년 만에 낸 정규 15집 ‘그레이트 워크스 오브 아트(Greatest Works Of Art)’가 차지했다. 강력한 팬덤 ‘스위프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즈(Midnights)’가 3위다.

한편 국제음반산업협회는 전 세계 8000여 개 이상의 음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업계 단체다.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물리적 형태의 음반(CD·바이닐 등) 개수와 유료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당해 많이 판매된 앨범의 순위를 매긴다.